

# 실·바늘로 펼치는 진리의 세계

한상수 자수匠

日 '천수국수장' 복원

고급 디고온 천은 캔버스가 되고 오색 실은 물감이며, 바늘은 붓이 된다. 한 땀 한 땀 놓은 수는 꽃으로, 사람으로, 부처로 화려하고 장엄한 변신을 시작한다. 한상수 자수장(중우형문화재단 제80호)이 일본의 국보급 자수 '천수국수장(天壽國壽帳)' 복원을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자수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남아있고 무슨 용도로 제작됐는지 살펴본다.



승무 추는 모습이 담긴 현대 자수작품. 사진제공=오리엔탈이미지



일본 주쿠지(中宮寺)에서 발견된 '천수국수장'의 수를 복원한 한상수 자수장의 작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상수 자수박물관

불교자수는 불교와 관련된 불교용품에 사용된 자수를 통칭한다. 부처님의 자비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원성취를 이루려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다.

조선시대 불교자수는 신심이 독특한 여성 불자나 자수 기량을 습득한 비구니 스님에 의해 주로 제작됐다. 자릿수 기법(뿔자리의 결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넓은 면을 메꿀 때 사물을 이용해 시주한 사람과 연대 표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을 수놓은 수불, 번기, 가사, 방석, 다리니 주머니, 락의 등에 쓰인 자수들이 불교 자수로 분류된다.

불교자수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부분 길고 짧은 뿔모양으로 밀그림의 빈 자리를 메우는 자릿수법으로 놓는다. 제작 연대가 오래 된 것일수록 가는 실을 사용했으며 근세에 가까울수록 굵은 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 제작된 자수작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고려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기호산신도(驕虎山神圖)', 월정사 8각9층탑에서 발견된 '자수향낭', 선암사에

남아있는 대각각사 가사와 운문탁의, 전주시립 박물관이 소장한 불경 덮개 등이 고려 시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운문탁의는 중국 송 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쌍용문가사', 1880년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보살·경전

가 천수국이라는 극락에 왕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천수국수장'에는 "세상은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이며 오로지 부처만이 진리"라는 성덕태자의 말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일본의 국보급 자수라고는 하나 수 놓은 명문에 의하면 밀그림을 그린 아마노 아야노마테(阿波野 阿波加己利)의 세 화가들은 한국계로 추정되고 있다.

'천수국수장'은 사방 5m 크기로 두 장을 만들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한 장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세로 88.5cm, 가로 82.7cm 액자에 넣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비단 바탕의 무늬가 있는 천에 승속 인물, 신장상, 연화 뒤의 부처, 비운, 봉황, 토끼, 사원 등이 붉은색 노란색 청색의 색색실로 남아 있다.

인물의 복장은 고려려 고분벽화, 삼국시대 북장 등과 연관성이 많이 드러나 아스카 시대의 풍속과 한·일간의 교류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 불교자수, 부처님 자비찬탄·원력 담아

### 가사·방석·번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

이 수놓아진 '25초 자수가사'와 '불화복장낭(佛畫腹藏囊)'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현우경(賢愚經)> 등이 조선시대 전통 불교자수의 명맥을 이으며 전해오고 있다.

최근 한상수 자수장이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국보급 자수 '천수국수장(天壽國壽帳)'은 일본 성덕태자가 죽은 뒤 태자비가 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쿠지(中宮寺)에 있는 '천수국수장'은 성덕태자

# 경주, 앙코르와트에 가다

캄보디아 시엠립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캄보디아 전통춤은 엑스포 기간 동안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11월 21일~2007년 1월 9일까지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 주제로  
합동공연·퍼포먼스·영화제 등 열려

관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경주에서 열린 문화 엑스포를 이어받는 자리. 남·북방 불교 문화 유산을 종합, 경주와 앙코르간 문화벨트 형성이 가능할지 기대는 시급적이다.

11월 21일 개막식에는 캄보디아 승려 80여명과 한국-캄보디아 공연단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 공연단이 앙코르와트 내 특설무대에서 동양의 신비와 인류 상생을 주제로 개막식을 꾸렸다. 2007년 1월 9일 폐막식에서 선보일 '만다라의 노래'는 앙코르와트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퍼포먼스이다.

연출가 김아라씨가 연출을 맡은 '만다라의 노래'는 전쟁과 이념 분쟁이라는 역사적 공통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원혼을 불러내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인류 번영을 기원하는 천도재 형식으로 진행된다.

밀림 속 신들의 도시가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만나 변화의 용틀임을 시작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캄보디아 정부가 11월 21~2007년 1월 9일 캄보디아의 시엠립 일대에서 '앙코르-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06' 행사를 개최한다. 신라와 크메르 문명 등이 빚어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50일간의 문화축전이다.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 엑스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을 겸한 행사이기도 하다. 앙코르와트 유적군 일원 3만여평의 행사장에서 열리는 앙코르 엑스포는 각종 전통문화 공연, 3D 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즐비해 관

엑스포 기간에는 앙드레지 패션쇼, 양국 전통 의상쇼, 코끼리 퍼레이드, 크메르 고전 무용 콘서트, 국제연날리기, 영화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연출된다. 야외 특별공연무대에서는 한국,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태국, 중국 등 세계 20여국이 참가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한국·캄보디아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한국측에서는 국수호 디딤 무용단, HATA, 정숙희 무용단, 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 출연해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주최측은 행사 기간 동안 20여개국 1만여명의 문화예술인과 30만명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054)740-3060

강지연 기자

## 불교방송 가톨릭가 합창단 음성공양

불교방송 가톨릭가 합창단이 11월 24일 오후 7시 KBS공개홀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창단 11주년을 맞는 가톨릭가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오페라 '아미타불 노래하는 나무꾼과 선녀'이다.

윤문 스님이 작사한 '아미타불'과 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불교음악협회 반영규 회장이 작사한,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작곡해 무대에 올린다.

1부 '아미타불'은 '수행의 노래' 등 5곡의 노래를 선사한다. 3막 6장으로 구성된 2부는 '선녀와 나무

꾼'으로 감미로운 음성공양을 시도한다. (02)705-5305

## 한국불교문인협회 송년 시 낭송회

한국불교문인협회가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 서교동 한국불교문인협회 사무실 지하 몽쏘 카페에서 송년 시 낭송 및 수필 낭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 시 낭송 및 수필 낭독회는 2006년 한 해를 정리하고 보내는 자리로 꾸며진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1985년 8월 '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뜻을 빛의 힘으로 이루자'는 목표 아래 불자 문필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순수 문학 단체이다. (02)336-4907

# 사찰방범법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장  
혜철 스님이 감시 카메라의 가격을  
확실히 내리고 전국 서비스망  
구축과 함께 전국 사찰방범을  
시작합니다!

**가격만족  
확실한 서비스**

사찰방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화문의  
**043-732-5560**  
**011-9422-8453**

연도시스템

자동 움직임 탐지  
주야간 감시 및 녹화  
자동 경보음 발생  
빠른 탐색 및 편집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품평한 시공**

**년회원 가입 시  
정기점검 실시**  
(케이블보수, 기기 청소, 작동점검)

~ 알려드립니다 ~

직접방문하여 제품의 설명과  
비교평가 및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맞춤 시공을 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충북지사장  
(www.dss.or.kr, cafe.daum.net/dasungsa)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특별법외 봉행 육천 대성사